

<말 씬> 말2:1~9

<설교요약>

1. 하나님은 헛된 예배에 대하여 분노 하신다

하나님은 희생 제물의 똥을 제사장들에게 바를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2:1~3)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 병든 것, 눈먼 것, 버려도 되는 것을 끌고 와서 희생의 제물로 드렸습니다.(말1:13) 이 똥은 희생제물에서 나온 똥입니다. 헛된 예배를 드리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엮고 채찍질하면서 내쫓았습니다.(요2장) 그 시대의 예배는 무너졌고, 하나님은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에 맹렬한 분노를 일으키셨습니다.

1. 하나님은 왜 희생 제물의 똥을 제사장들에게 바를 것을 경고하셨습니까? (말1:13, 2:1.2)

-

2.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채찍으로 이들을 쫓아내셨습니다.(요2:15) 그 이유는 무엇이며(2:16)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형태의 예배인지 함께 나눠봅시다.(요4:23.24)

2-1)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매매상들을 쫓아내신 이유(요2:15.16):

2-2)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형태(요4:23.24):

2. 레위는 분노하던 자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궁극적으로 선용하셨다

그런데 알기 힘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항상 있게 하려고 명령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2:4) 레위는 창세기의 가장 가슴 아픈 사건에 등장합니다. 야곱은 약속의 장소인 벵엘로 올라가지 않고 밭을 사 정착할 마음으로 세겜에 거주하였습니다. 레아에게서 낳은 그의 딸 디나가 세겜성 안에서 성주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 야곱은 딸의 성폭행에 대하여 침묵하였습니다. 레아에게서 낳은 시므이와 레위는 여동생이 당한 일과 가족들의 침묵에 분노하였습니다. 레위와 시므이는 복수극을 계획하고 세겜과 화친하는 척 가장한 후 할례를 행하게 하여 살육 극을 벌였습니다. 시므이와 레위가 세겜성 안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창34장) 그런데 야곱은 오히려 이 일에 대하여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곤란하게 되었다고만 말하였습니다.(창34:30) 야곱은 임종 앞에서 시므이와 레위를 향하여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렸습니다. 두 지파가 흩어지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창49:5~7) 레위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 지파로 흩어져 들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을 때 산 말에서 우상 숭배하던 3000명에게 벌을 내리기 위하여 레위지파를 동원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형제를 친 것을 여호와께 헌신하였다고 말합니다.(출32:29) 여기서 ‘헌신하다’는 죄로부터 ‘구별하다’란 의미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죄를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의 값이 지불된 현장입니다. 레위가 이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후에 혈기 많던 레위가 경건한 자로 소개됩니다.(신33:8~10) 그는 인정에 끌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레위는 복수극에 온 성을 피바다로 만들었던 끔찍한 일을 벌였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지파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신33:10) 그는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3.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저주(“너희 자손을 꾸짖고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바를 것이며 너희가 내게 버림을 받을 것이라”)의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2:2~4)

-

4.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자 어떻게 했습니까? 시므이와 레위의 상황과 대조하여 설명해 봅시다.(창34:25~27, 창49:5~7)

4-1) 시므이와 레위의 행위(창34:25~27):

4-2) 야곱의 행위(창49:5~7):

5. 모세의 명령에 레위지파가 한 일은 무엇이며 이러한 레위 지파의 수고에 대해 모세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5-1) 레위지파가 행한 일(출32:26~28):

5-2) 레위지파의 수고에 대해 모세가 한 말(출32:29):

6. 레위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공의를 행한 결과 그의 심경과 삶은 어떻게 변화 되었습니까? (신33:8~10)

-

7.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33:10)

-

* 생각하기: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내 자신의 단점까지도 들어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봅시다.

-

3. 그리스도는 죄의 댓가를 지불하셨고,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회복자로 세워졌다

이처럼 말라기 선지자는 인생에는 희망이 없기에 레위의 언약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복수극을 벌이던 족속을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궁극적인 멸망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2:5) 결국 성도가 “온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말3:5)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과 회복은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는 심정이야말로 참 예배의 전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무너지고 회복된 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고백합니다.(시 51:17) 이것이 레위 언약 안에 담긴 생명과 평안의 약속입니다. 레위의 과거 모습이 우리였지만, 이제 소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 분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회복자로 서야 합니다.

8. 말라기 선지자가 레위의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9. 하나님에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며 참예배의 본질과 회복은 어떠한 때 가능 합니까? (말2:5, 3:5)

9-1)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말2:5):

9-2) 참예배의 본질과 회복은 어떠한 때 가능한 가?(말3:5):

*적용: 1)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언제였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2) 내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단점이나 연약한 습관이 있습니까? 이 한 주간 하나님께 그러한 단점까지도 들어 사용해 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주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 한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주시고 온전한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죄를 죄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소서.